

## 비익조(比翼鳥)

오늘 컨셉드로잉 수업시간 중에 일본영화 <소녀>에 나오는 비익조를 예로 들어주었었다. 케이블 티비에서 여러 번 반복 방영했기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새는 또 다른 (날개 하나뿐인) 상대를 만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두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전설의 새라고 한다. 이 전설의 새를 남녀가 등판에 하나씩 아로새김으로써 둘의 연분을 신비스런 설화에 기대어 아름답고도 공고하게 한다는 얘긴데... 이 얘기를 들려주자 아이들은 즉각 내게 되물었다. “그런데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?” π..π

그 신비한 새의 문신이 천생 연분의 증표에서 돌연 천생 악연의 닳이 될 수도 있는 인간사의 진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음과 동시에 요즘 아이들의 창발성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. 오호(嗚呼)라, 기위친정(己位親政)하니 십오일언(十五一言)이요 십일일언(十一一言)이라.

양(陽)이 음(陰)으로 변하는 후천개벽의 시대가 왔으니 어서어서 나 같은 늙다리들 뒤로 조용히 물러나 젊은이들을 돕고 젊은이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거늘, 그래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자벌레가 (앞으로 나아가기 위해) 몸을 구부리고 용과 뱀이 (봄을 맞기 위해) 겨울잠을 자는 듯 사는 것임을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것이리... 이 가을, 수장(收藏)의 시대라는 후천개벽의 새벽안개를 음미하면서 감상에 젖은 글을 남겨본다.